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2025년도 제2호

체육시민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벼랑 끝에서, 새 기회를④]

'혼란의 연속' 체육회장 선거, 전문가가 본 이변 원인

김종원 스포츠월드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유승민 새 체육회장의 과제…정부와 관계 회복 · 조직 정상화

유영규 SBS 기자

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득표율 89%로 재선 성공

김양희 한겨레 기자

[SS포커스]

중앙선관위 위탁 무산, '파행 거듭' 축구협회 '공정 선거' 더 절실해졌다

정다워 스포츠서울 기자

사격코치 등 3명, 징역 6~8월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입시생 부모에 돈 뜯은 체육지도자들

이영주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Civic Network for Justice in Sport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체육시민연대입니다.

소중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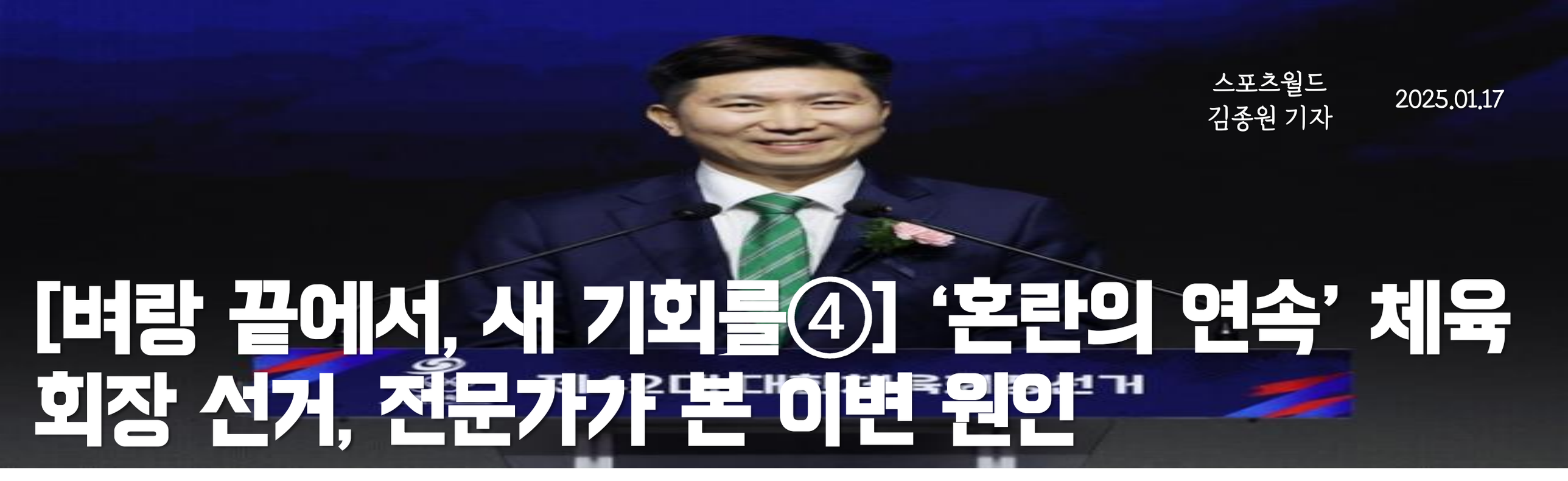
혹시 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경우,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확인 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문의 이메일:** sports-cm@hanmail.net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체육시민연대는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드림



스포츠월드
김종원 기자

2025.01.17

[벼랑 끝에서, 새 기회를④] ‘혼란의 연속’ 체육회장 선거, 전문가가 본 이변 원인

“밑바닥 민심, 콘크리트 지지층 무너트리고 이변 일으켰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체육계 ‘탑독’이었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무너지는 대이변이었다. 개혁이 절실하다는 민심의 날갯짓이 대한체육회장 선거판도를 바꾸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유 당선인과 이 회장의 차이는 단 38표였다. 유효표 1209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약 3%의 미세한 차이였다. 이 회장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이기흥 회장이 유리하다’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극소수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이 회장 편에 있었다. 밑바닥부터 변하고 있는 민심이 실제 투표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체육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넘어선 것이다.

이어 최 평론가는 “유승민은 정통 체육인이고, 대한탁구협회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역임한 행정가 경험도 있다”며 “체육인의 기저에 흐르는 정서가 변했다. ‘이제는 체육인이 회장이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의 씁쓸한 퇴장은 자충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체육계 인사는 “앞서 두 차례 체육회장을 역임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쌓았다. 이를 토대로 그간 다져놓은 텃밭도 분명 탄탄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비위 의혹을 포함, 사법리스크를 너무 등한시했다. 자만한 셈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꼬집었다.

유 당선인의 발로 뛰는 선거 운동, 그리고 네거티브 선거전에 참전하지 않은 우직함이 승리 요인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혹은 시작 초기 때만 해도 유 당선인이 이 정도로 많은 호응을 모으지는 못했다”면서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인단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부분이 선거 직전까지 쌓이고 쌓이면서 지지율이 단숨에 선두권까지 치고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말 그대로 발로 뛰었다. 유 당선인은 전국 곳곳을 순회하며 체육계 인사와 직접 만났고, 대한체육회 가맹 68개 종목을 직접 체험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선보였다. 유 당선인 선거 캠프 관계자는 “각 종목 선수들이 겪을 고충과 함께 해당 종목 단체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체육계 전반에 가장 열심히 자신을 어필한 후보일 것”이라며 “유 당선인을 필두로 캠프 조직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종사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미처 닿지 못한 곳에도 전화 통화를 통해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펼쳤다. 아무래도 발로 뛰며 노력한 만큼 체육인들의 마음도 일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선거 막판 불거진 ‘네거티브’ 논란 역시, 여기에 참전하지 않은 유 당선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다. 이번 선거는 최초 ‘반(反) 이기흥’으로 시작해, 막바지에는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쟁으로 번졌다. 유 당선인을 향해서는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공금 운용 논란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유 당선인은 상황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선거 직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 해명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서로를 비방하기보다는 정책을 바탕으로 한 깨끗한 선거 운동을 하자”고 독려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유 당선인은 일련의 공방전을 통해 강력한 이미지를 얻었다”면서 “다들 집중 견제를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경쟁 대상이라는 걸 보여준 것 아닌가.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계속될수록 유 당선인의 체급을 올려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 역시 “아이러니한 일이다. 네거티브 공세 덕분에 오히려 다른 후보들과 (유 당선인이)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396/0000698157

SBS
유영규 기자

2025.01.15

유승민 새 체육회장의 과제...
정부와 관계 회복 · 조직 정상화

'아테네의 영웅'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고 새 수장에 올랐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14일 치러진 체육회장 선거 개표 결과, 총투표수 1천209표 중 417표를 획득해 3선에 도전한 이기흥 회장을 38표 차로 제치고 한국의 새로운 '스포츠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탁구 남자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하오를 4-2로 꺾는 '녹색 테이블 반란'을 일으키고 금메달을 따냈을 때를 연상시키는 대반전 드라마입니다. 유승민 당선인은 재임 8년간 다져놓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앞세워 수성에 나선 이기흥 회장과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승리하며 한국 체육을 이끌어갈 중책을 떠안게 됐습니다. 유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분이 좋기보다는 책임감이 느껴진다"는 짤막한 말로 자기 어깨에 드리운 중책의 무게를 대신 설명했습니다.

2029년 2월까지 4년 임기의 회장직을 수행하는 유승민 당선인에게는 산적한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24일 앞으로 다가온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2월 7～14일)과 재임 기간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 로스앤젤레스(LA) 하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의 성적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유 당선인은 25년간 선수로 활약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지도자로 2년, 그리고 행정가(탁구협회장·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로 8년을 현장에서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땀과 노력의 가치와 선수들의 열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40대의 젊은 회장으로서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과 소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관계 회복과 더불어 체육회 조직 내부 정상화도 유 당선인이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기흥 회장 재임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4천400억 원 규모였던 체육회 예산에서 1천억 원 정도가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를 거쳐 시도체육회로 배정되던 예산 400여 억 원을 문체부가 직접 교부하고 있고, 체육회 사업이 문체부 등으로 이관되면서 추가로 500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탁구협회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문체부와 좋은 관계를 형성했던 유 회장은 정부와 꼬였던 매듭을 풀 적임자로 평가됩니다.

문체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국 체육의 위상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기흥 회장에게 실망했던 체육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한국 체육 청사진을 새롭게 설계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도 유승민 회장에게 맡겨진 과제입니다. 또 체육회장 후보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과도 협조해 좋은 정책은 수용하는 한편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4년을 책임진 유 회장이 자신이 내세웠던 선거 구호처럼 '변화의 스매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바꾸다, 예스 위 캔 투게더'(Yes We Can Together)를 실현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료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48160&plink=ORI&cooper=NAVER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득표율 89%로 재선 성공

한겨레
김양희 기자

2025.01.16

정진완(58)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 16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실시한 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64표 중 57표(득표율 89.1%)를 얻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기호 1번 이재활 후보는 7표를 득표했다.

2000 시드니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정진완 당선인은 선수 은퇴 뒤 행정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과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서는 역대 회장 중 최초로 재선에 성공했다.

정진완 당선인은 “지난 4년간 제5대 회장으로서 우리가 가진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장애인체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새로운 4년, 장애인체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장애인 체육인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포용과 혁신으로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진완 당선인은 이날까지 직무정지 상태로 선거를 치렀고 17일부터 다시 회장직에 복귀한다. 제6대 회장 임기는 다음달 27일부터 2029년 2월 정기총회일 전일(2월21일)까지다.

자료 출처: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1178289.html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

2025.01.20

중앙선관위 위탁 무산, ‘파행 거듭’ 축구협회 ‘공정 선거’ 더 절실해졌다[SS포커스]

전보다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는 3월 5일 최초 실시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 업무가 진행 중임에 따라 일정상 임의위탁 선거를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결정을 전달했다. 선관위는 “우리 위원회가 위탁·관리하더라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임의위탁 선거는 위탁단체인 대한축구협회와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구분해 관리하게 돼 있어 현 단계에서 우리 위원회가 해당 선거를 전반적으로 총괄 위탁·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같은 법 제9조(임의위탁선거의위탁관리 결정·통지)에 따라 해당 선거를 미수탁한다”라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8일 중앙선관위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관리를 위탁해 진행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협회장 선거 일정은 7일 법원이 허정무 후보 측이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전면 중지됐다. 축구협회의 선거 투명성을 의심한 신문선, 허 후보 측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중앙선관위에 이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를 의뢰했지만 무산됐다.

신 후보, 허 후보가 중앙선관위 위탁을 강력하게 주장한 가장 큰 근거는 선거운영위원회를 향한 의구심에 있다. 선거인단의 규모도 문제였지만, 위원회 명단에도 큰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8명의 위원 중 현직 변호사는 5명이었다. 사내 변호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변호사가 4명인데 그 중 3명이 건설, 부동산 전문이었다. 정몽규 후보가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 회장인 것을 고려하면 문제의식을 제기할 만하다. 게다가 축구협회는 운영위원을 꽁꽁 숨겨 세상에 알리지 않아 더 큰 의심을 샀다.

중앙선관위가 위탁을 거절하면서 선거는 축구협회에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됐다. 신 후보, 허 후보도 더 이상 축구협회의 선거 운영에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더 공정성, 투명성이 중요해졌다. 법원이 한 번 제동을 걸었던 만큼 선거운영위와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해 보이는 구성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게 분명하다. 선거인단도 법원이 요구한 대로 규정에 맞게 갖춰야 한다.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과정으로 선거 절차를 밟아야 파행을 막을 수 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예상보다 한 달 이상 미뤄지게 됐다. 축구협회는 이달 중으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꾸린 뒤 2월 초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선거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축구협회장 공백이 길어지면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축구협회의 공정 선거가 파행을 피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료 출처: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90682?ref=naver

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2025.01.19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입시생 부모에 돈 뜯은 체육지도자들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부모를 상대로 "더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뜯은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B(53)씨에게 징역 8월을, C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인 피해자의 처지와 기대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자녀에 대해 실제 사격 레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C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격 코치인 A씨와 과거 A씨와 선수로 활동한 B씨 등은 2021년 체육입시생을 자녀를 둔 피해자를 만나 "D 대학에 특기생 티오가 두 명 있다. A씨와 레슨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하며 마치 D 대학에 입학시켜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레슨비 명목 3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피해자에게 'D 대학 사격부 감독'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줬으나, 실제로 B씨는 감독이 아닌 재능기부 지도자였으며, D 대학 실기우수자전형(특기생) 선발 종목에는 사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피해자 측에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고 권유하며, A씨와 B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아들이 D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했는데도 합격했다고 속여 2천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자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7089600061?input=1195m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체육회, AG 출전 선수단에 마케팅 규정 배포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0113900007?input=1195m

용산구, 2025년 공공체육시설 운영 종합계획 수립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20_0003038171

예산군, 공공 체육시설 확충…건강한 도시 만든다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851

전 프로축구 선수 가담 1조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0051500051?input=1195m

제주도, 체육회 보조금 관리 강화…국제대회 참가 '제한'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9_0003037516

청주장애인체육회, 장애아동 대상 동계 프로그램 제공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131

'체육회장 3선' 실패 이기흥 회장… IOC 위원 사의 표명

https://biz.chosun.com/sports/2025/01/16/OFYSR4R67VGDRDIQS2XFRVJKC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전남체육회 감사 무더기 적발..빠져나간 시민 혈세

https://kjmbc.co.kr/NewsArticle/1444603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